

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

CATI & ARS

제67차 CATI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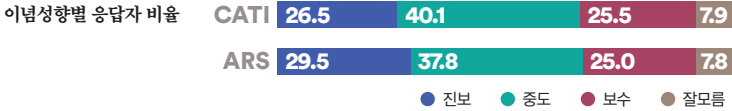
제82차 ARS조사

여론조사꽃

정례여론조사

보고서

CATI & ARS



CATI 조사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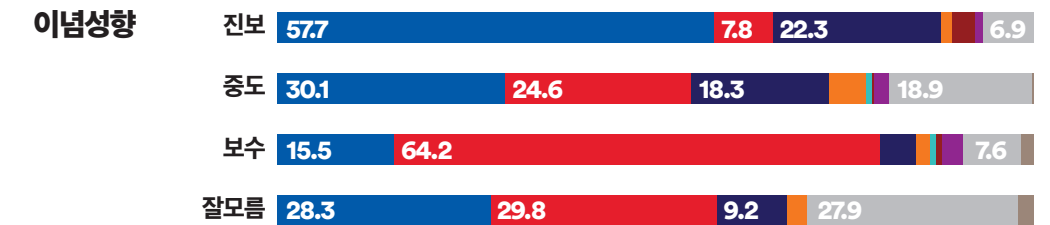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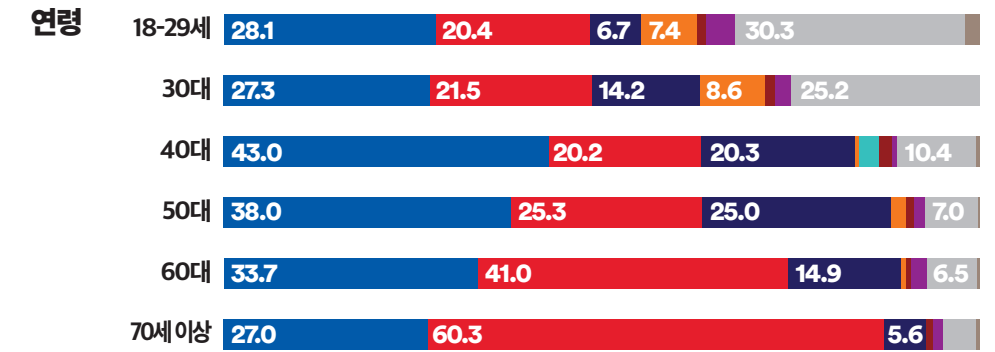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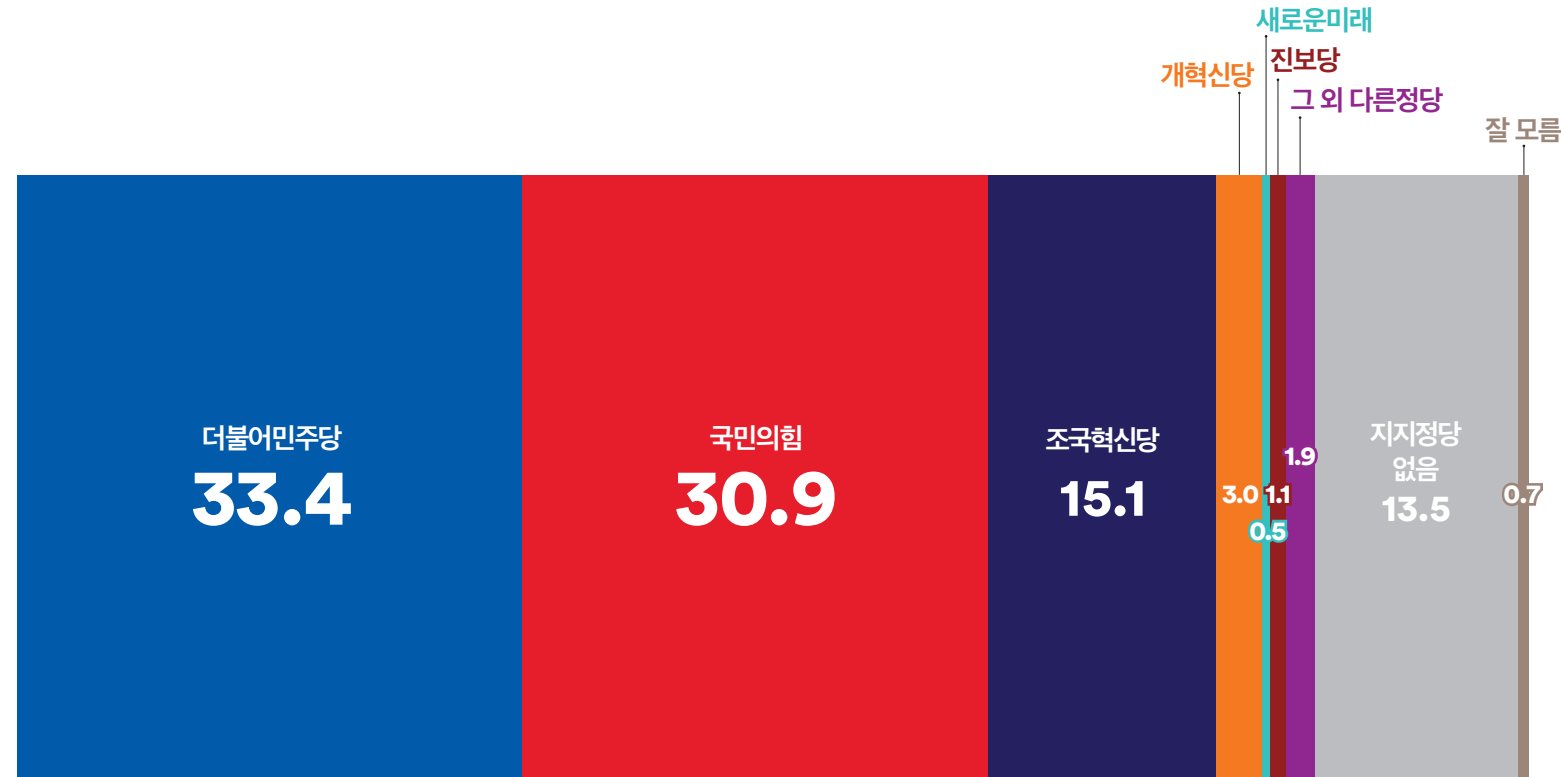


ARS 조사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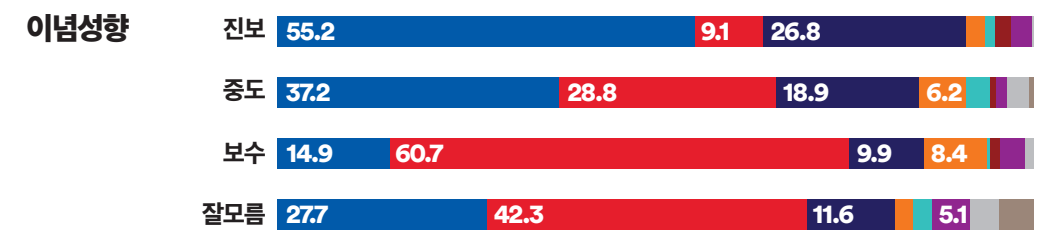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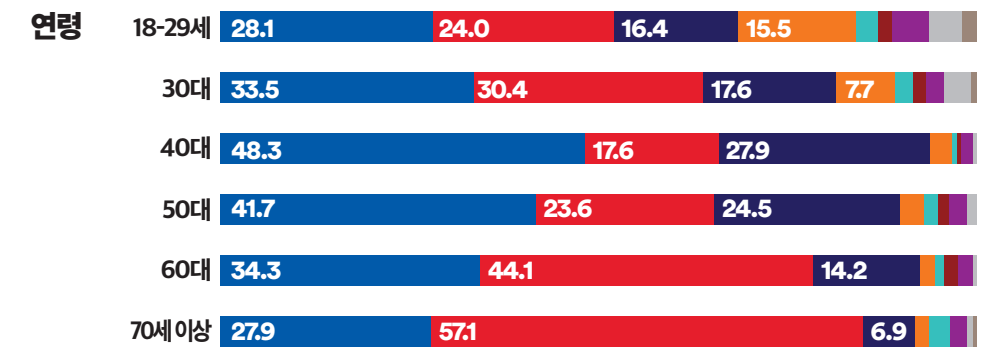


Q.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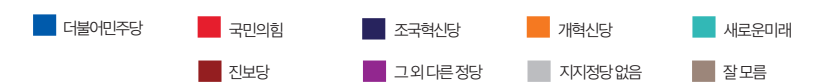
CATI



AR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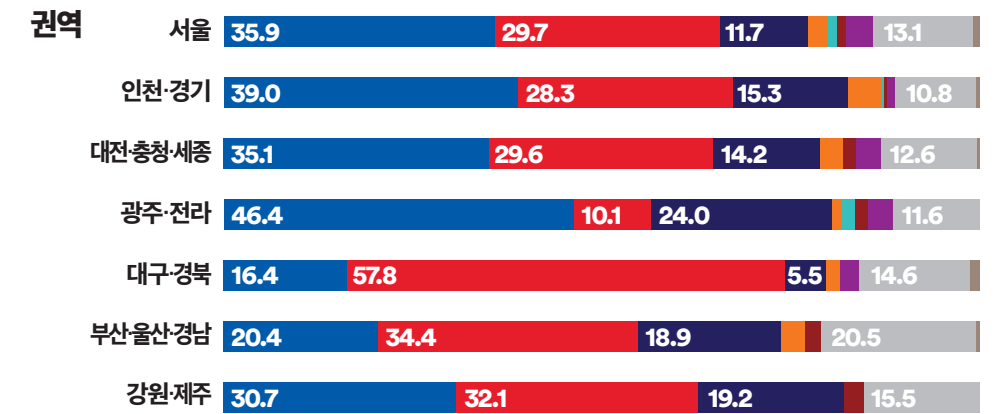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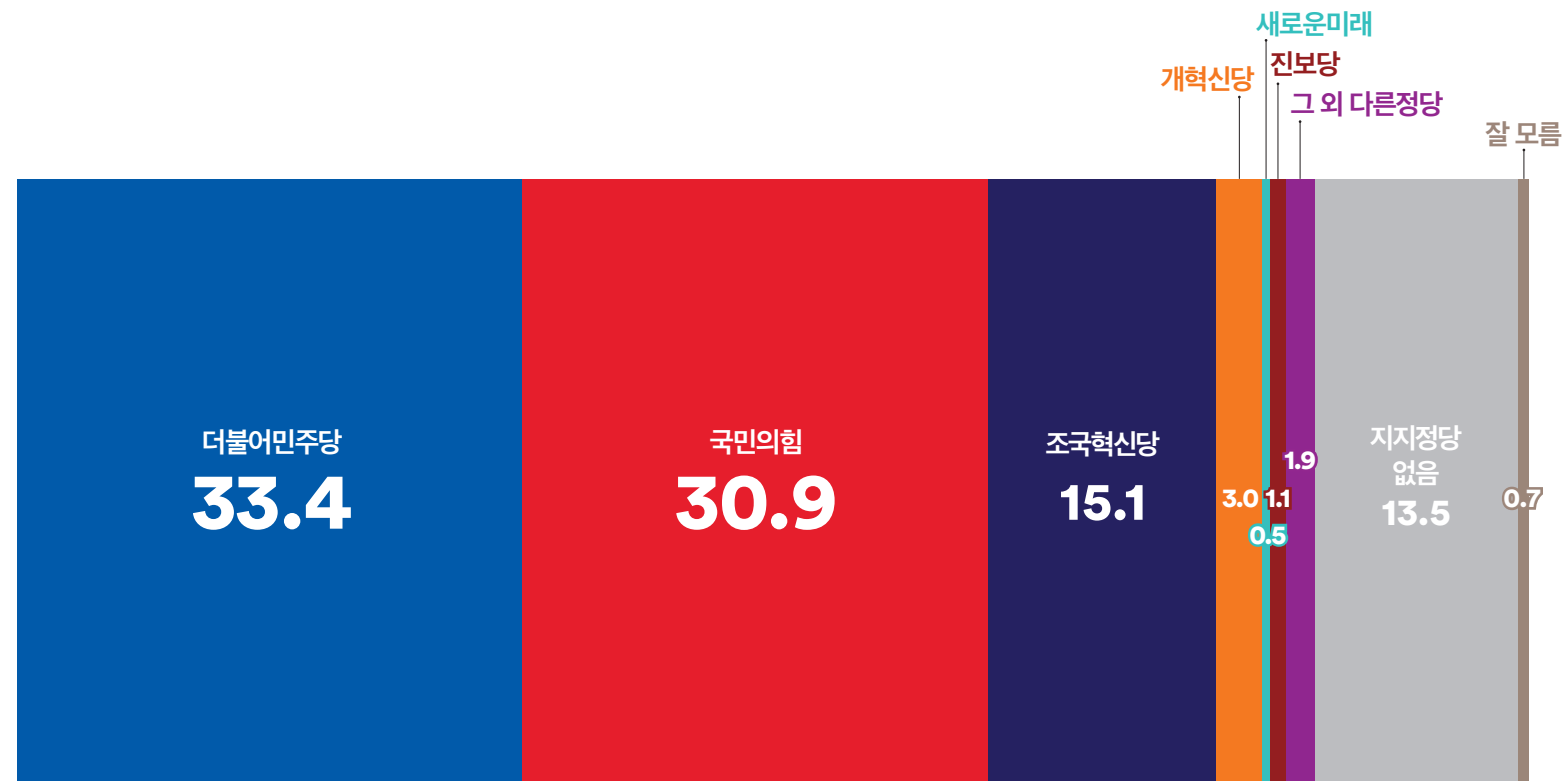


66차 CATI조사 대비 '더불어민주당' 7.2%p하락, '국민의힘' 2.3%p 상승, '조국혁신당' 3.1%p상승
 81차 ARS조사 대비 '더불어민주당' 8.9%p하락, '국민의힘' 3.9%p 상승, '조국혁신당' 4.3%p상승
 '더불어민주당': '국민의힘' 간 격차는 CATI 2.5%p, ARS 4.2%p(지난주: CATI 12.0%p, ARS 17.0%p)
 '더불어민주당'+ '조국혁신당': '국민의힘' 간 격차는 CATI 17.6%p, ARS 22.6%p(지난주: CATI 24.0%p, ARS 31.1%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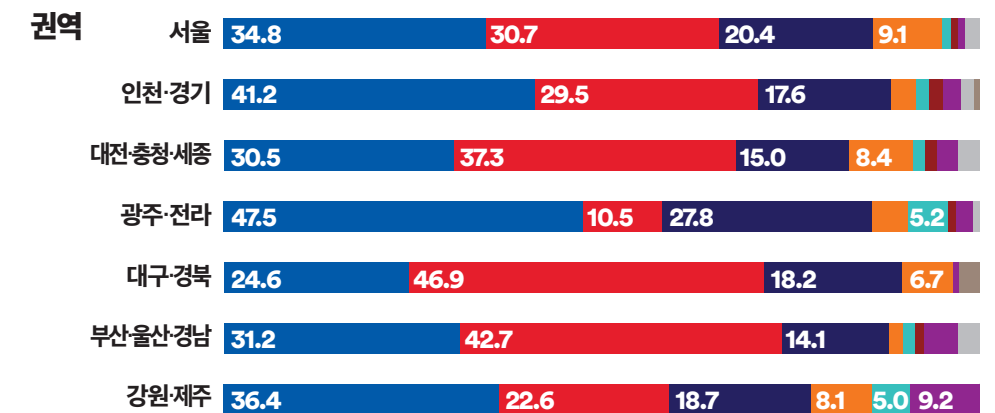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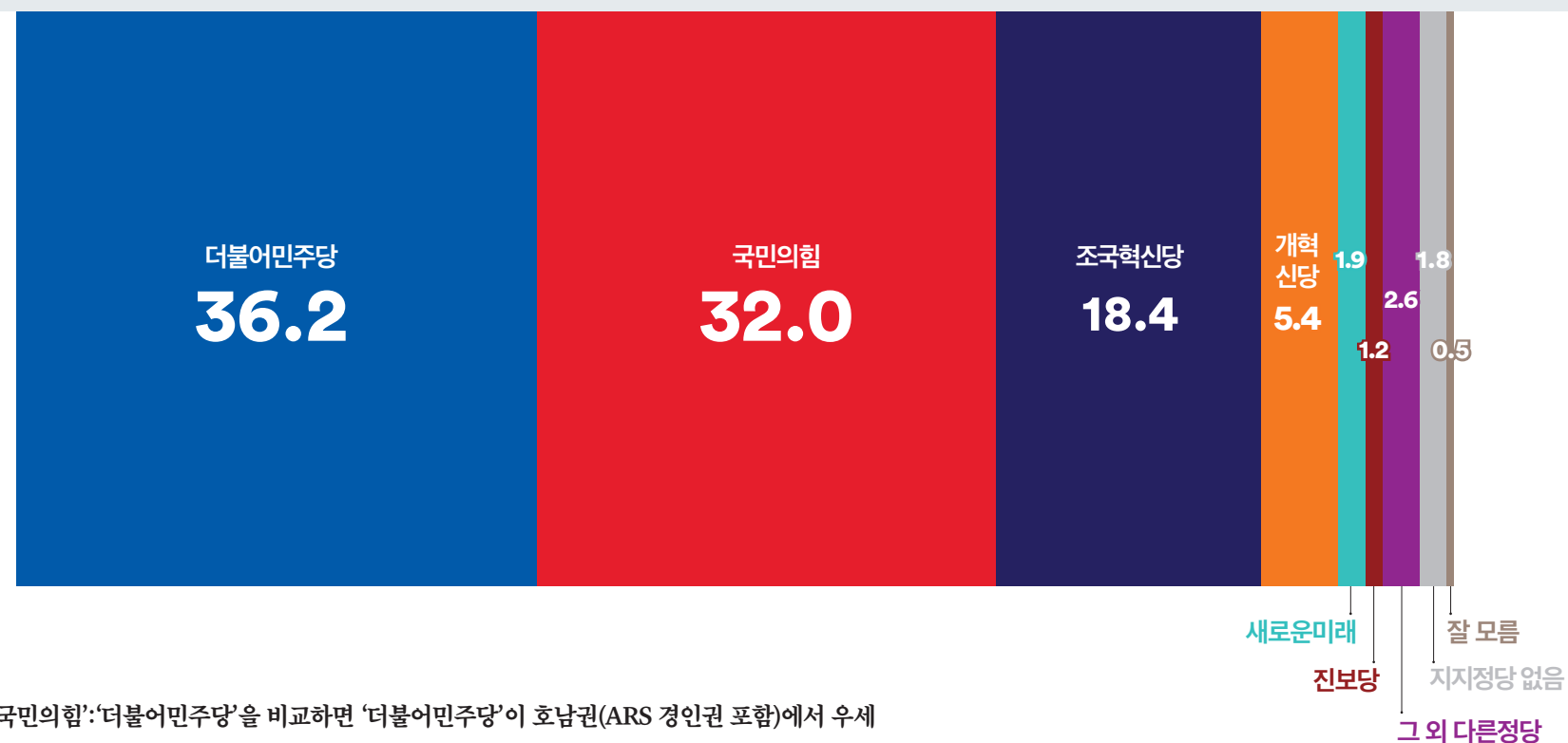


Q.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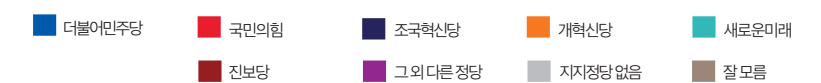
CATI



AR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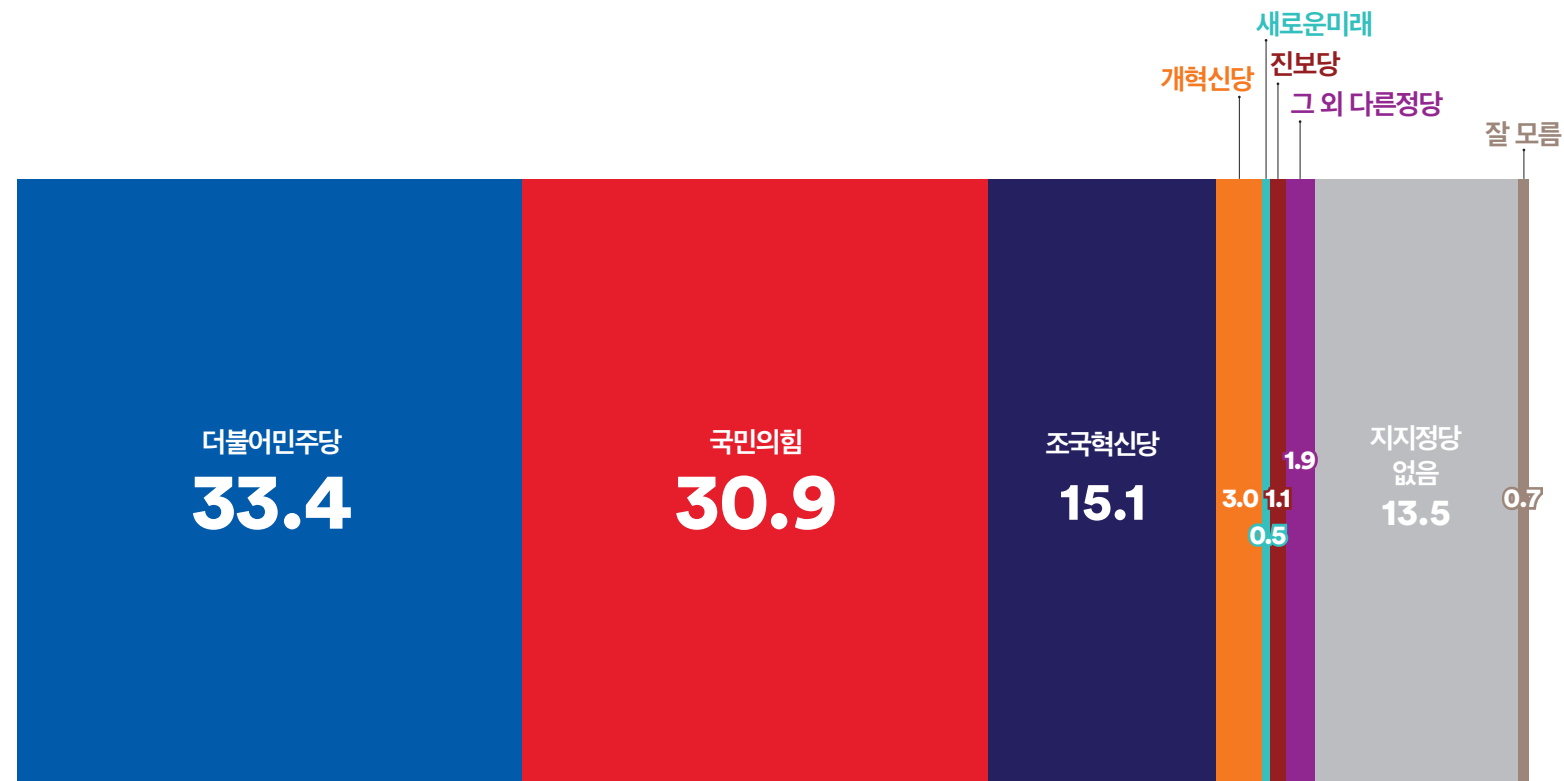


‘국민의힘’·‘더불어민주당’을 비교하면 ‘더불어민주당’이 호남권(ARS 경인권 포함)에서 우세
 ‘국민의힘’·‘더불어민주당’+‘조국혁신당’을 비교하면 범야권 세력이 수도권과 호남권(CATI 충청권, ARS 강원·제주 포함)에서 우세
 지난주 대비 ‘더불어민주당’은 두 조사의 모든 권역에서 지지율 하락, 이탈층 중 일부는 ‘조국혁신당’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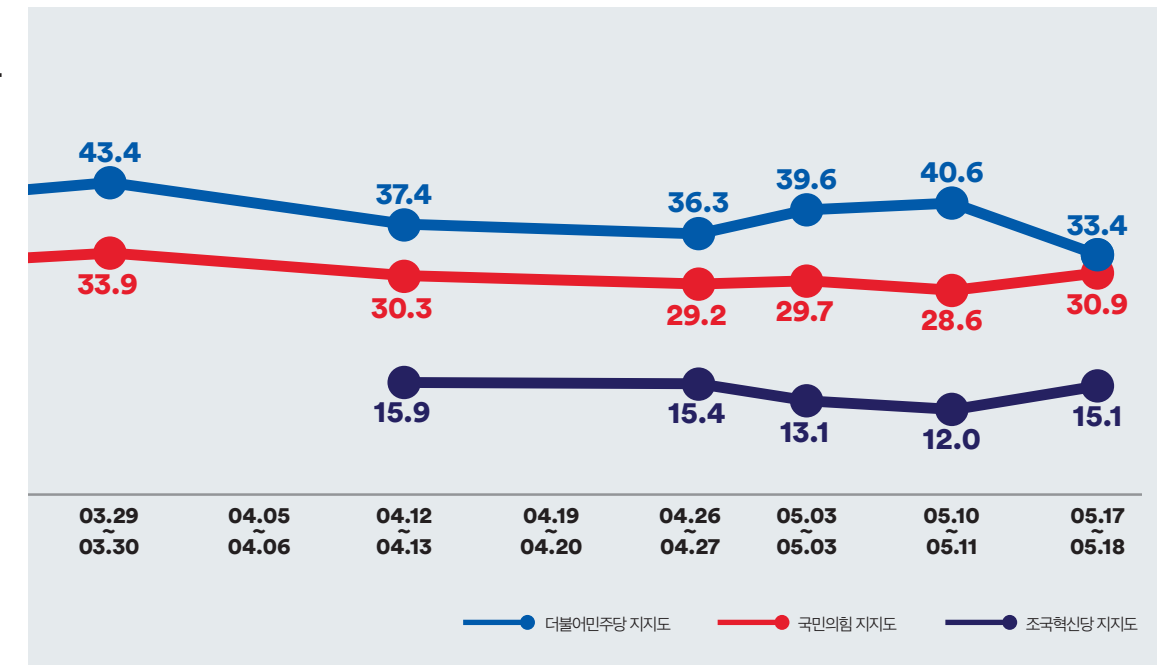


Q.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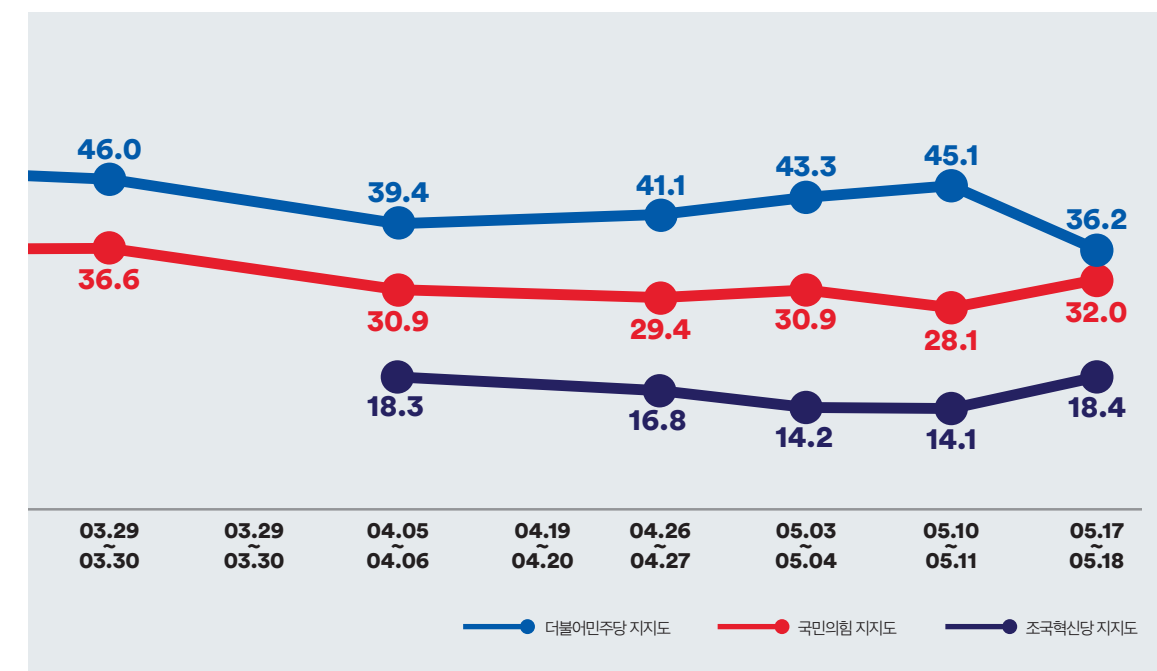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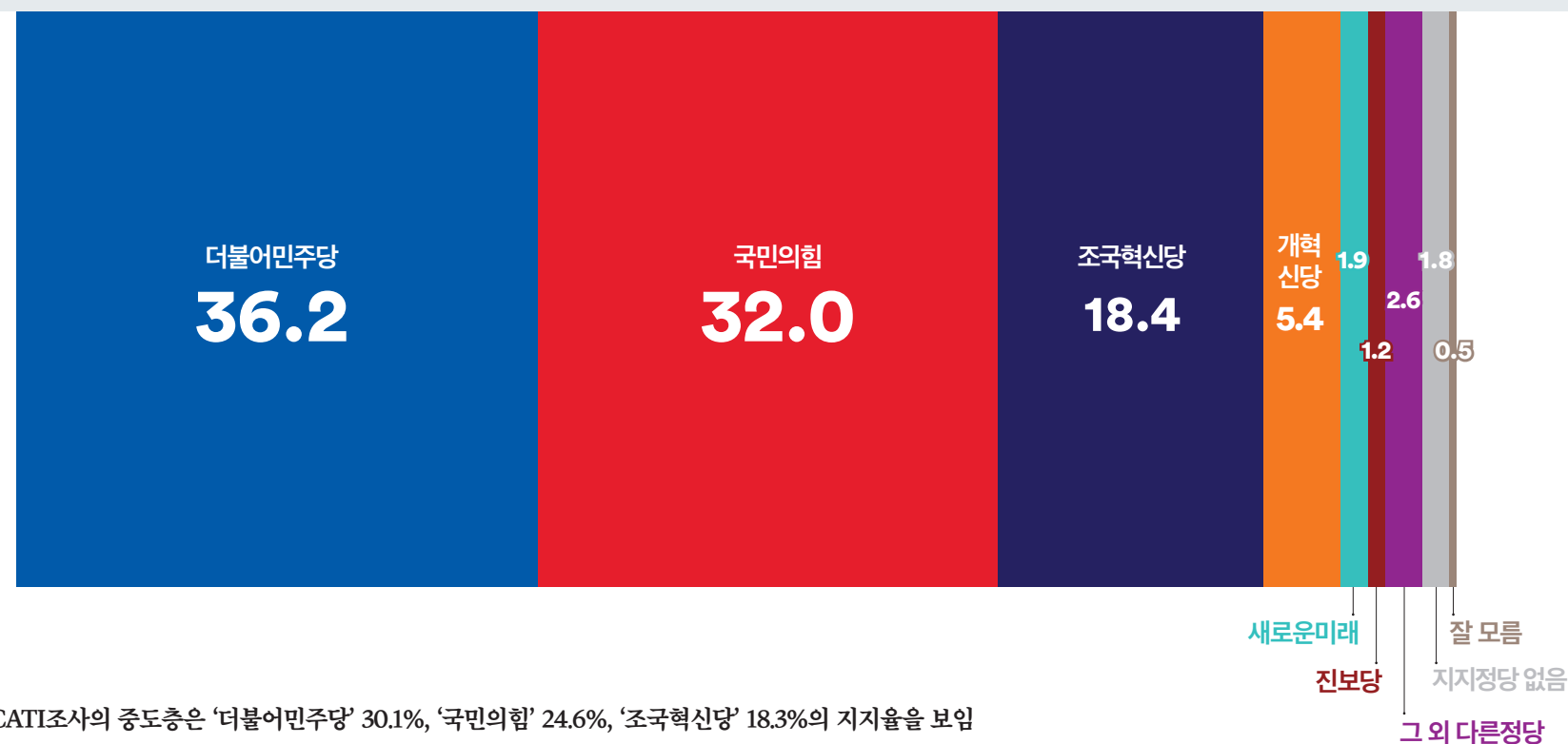
CATI



주차별
정당지지도



ARS



CATI조사의 중도층은 '더불어민주당' 30.1%, '국민의힘' 24.6%, '조국혁신당' 18.3%의 지지율을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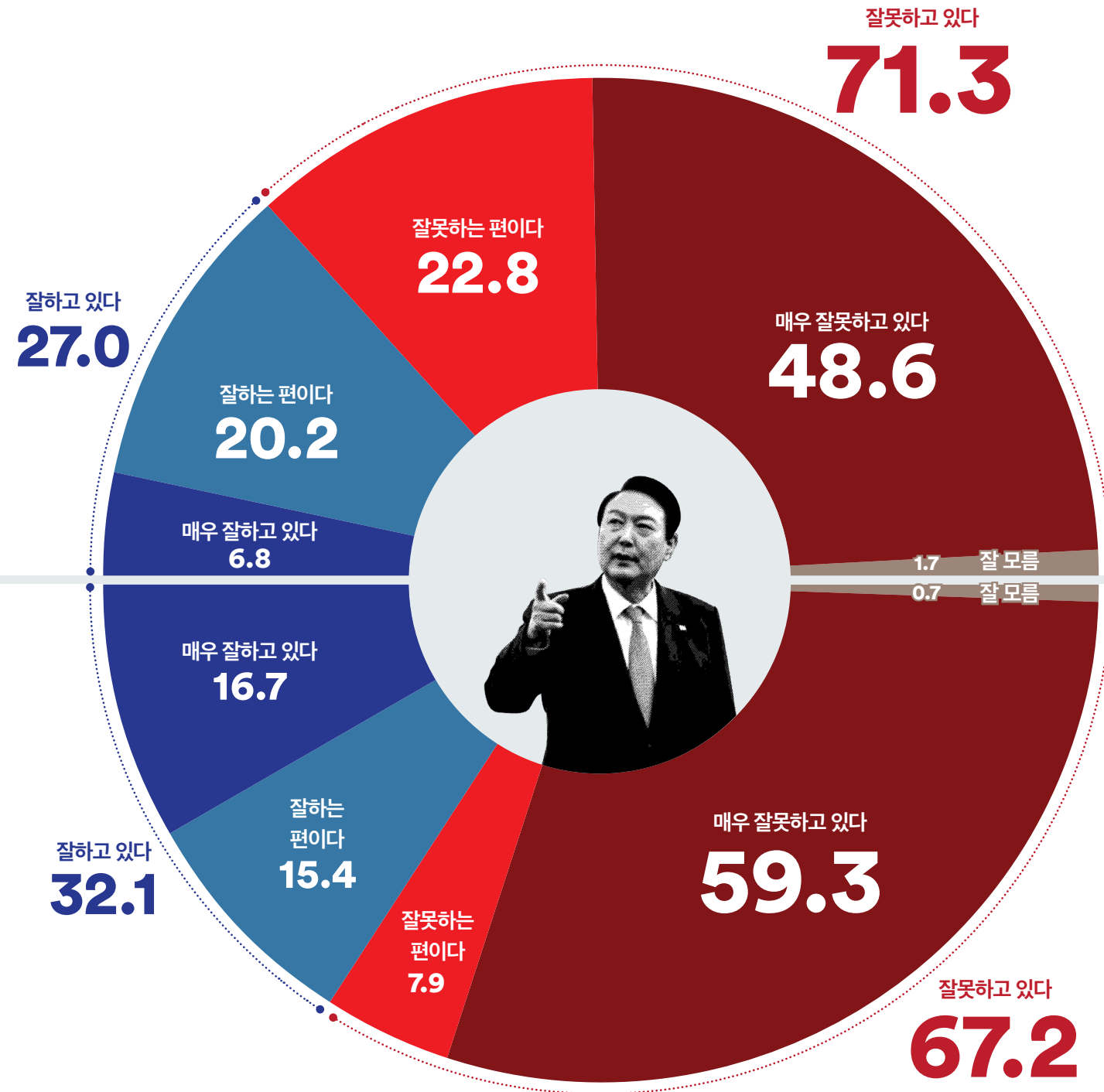
ARS조사의 중도층은 '더불어민주당' 37.2%, '국민의힘' 28.8%, '조국혁신당' 18.9%의 지지율을 보임

중도층에서의 양 세력('더불어민주당'+ '조국혁신당': '국민의힘')간 지지율 격차는 CATI 23.8%p(66차: 27.7%p), ARS 27.3%p(81차: 34.6%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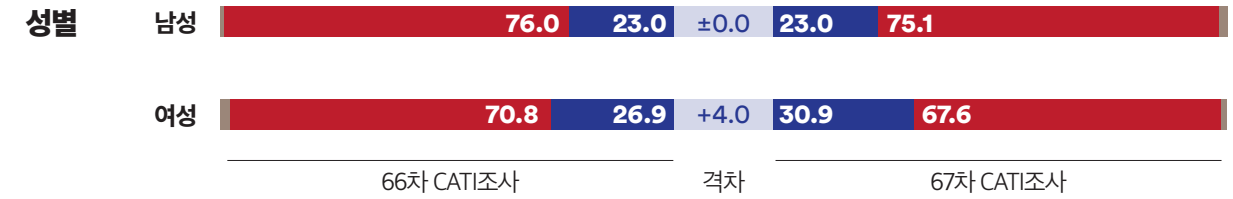
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
진보당 그 외 다른 정당 지지정당 없음 잘 모름

Q.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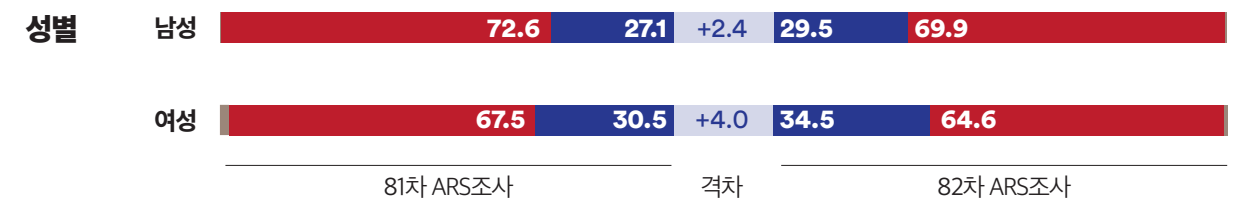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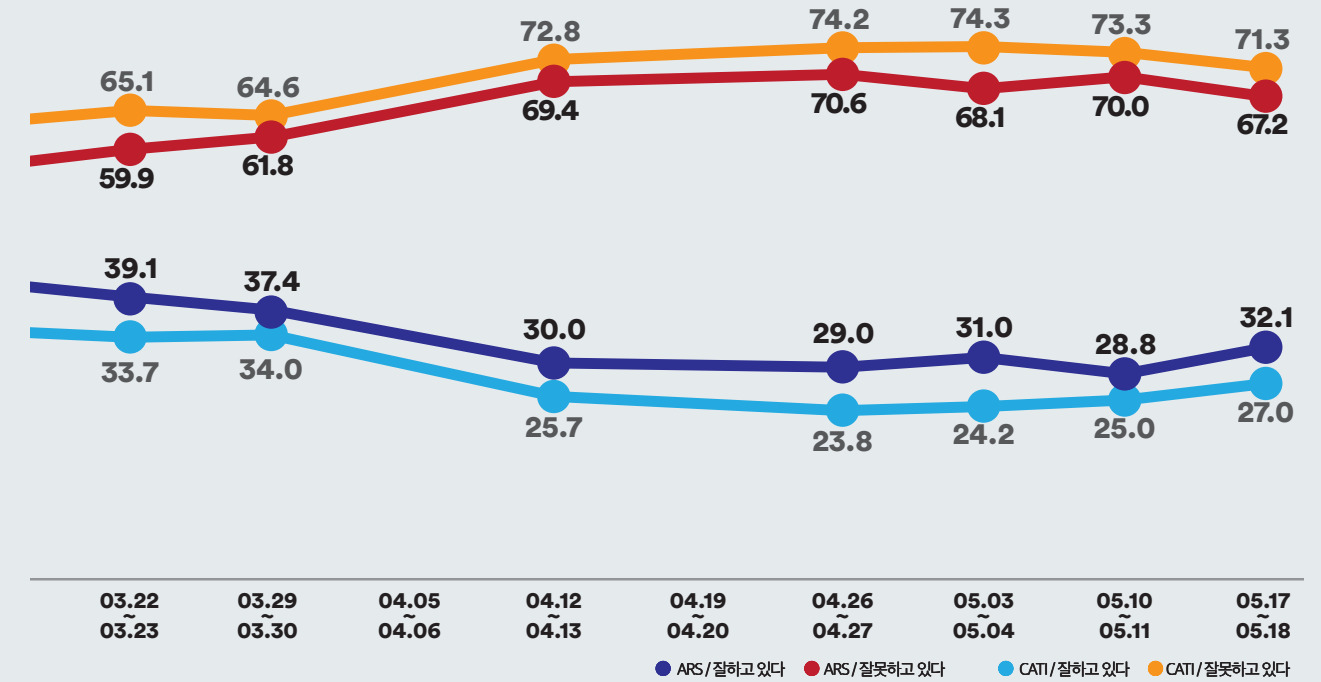
CATI



ARS



주차별 국정운영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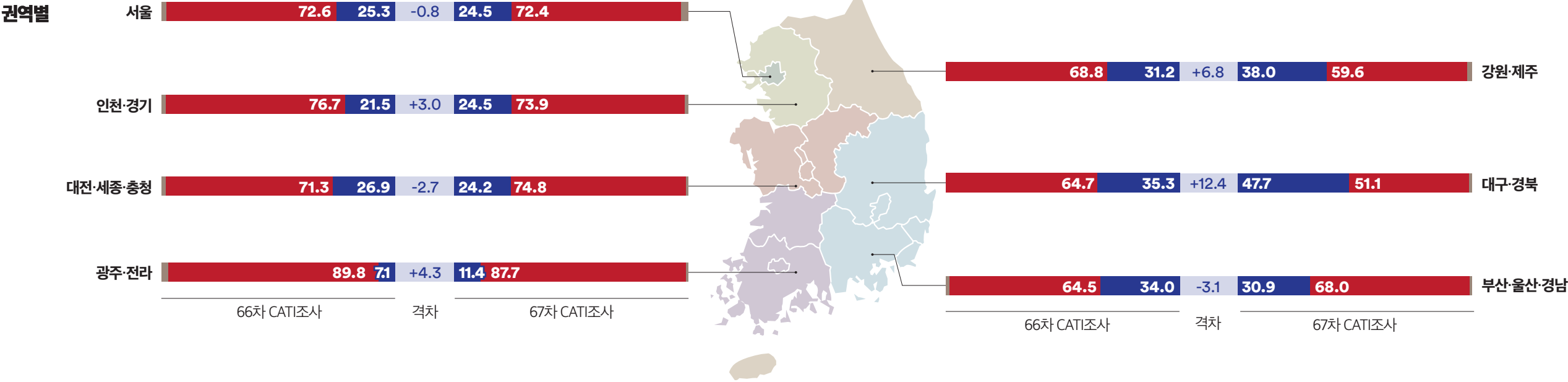


지난 66차 CATI조사 대비 '긍정' 평가 20%p 상승, '부정' 평가 20%p 하락(격차 44.3%p)
 지난 81차 ARS조사 대비 '긍정' 평가 3.3%p 상승, '부정' 평가 2.8%p 하락(격차 35.1%p)
 두 조사의 모든 권역, 남·녀 모두, 50대이하 연령층(CATI 60대 포함)에서 '부정' 평가가 앞서거나 우세
 중도층의 평가 간 격차는 CATI 51.8%p(지난 조사: 56.1%p), ARS 43.7%p(지난 조사: 48.6%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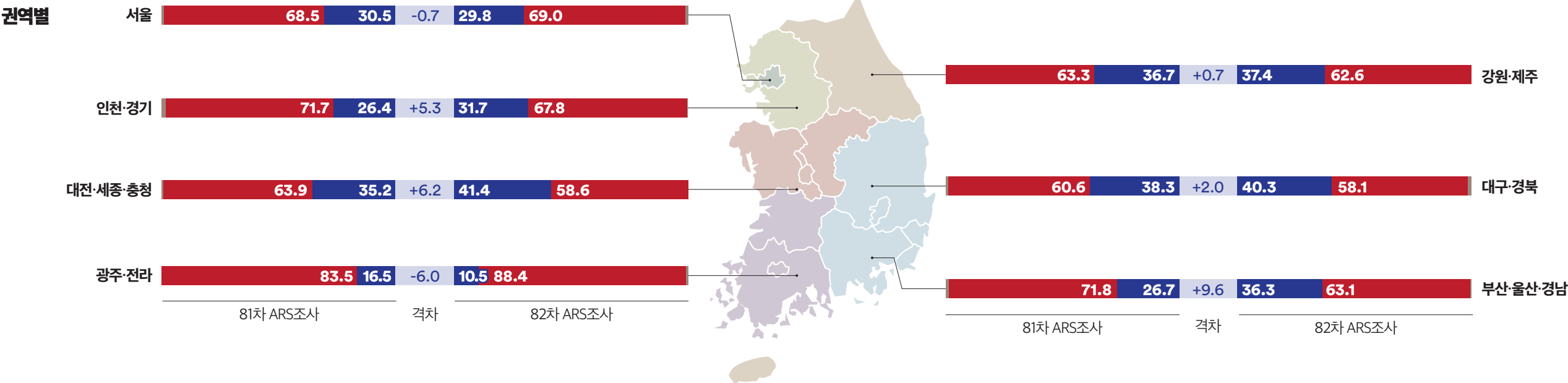
격차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

Q.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

CATI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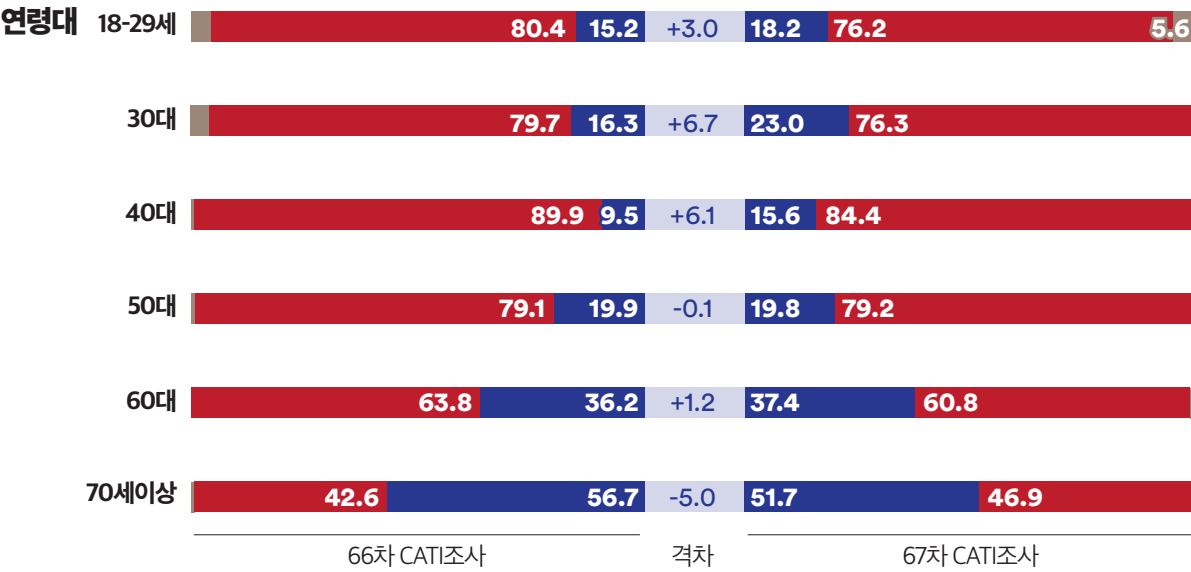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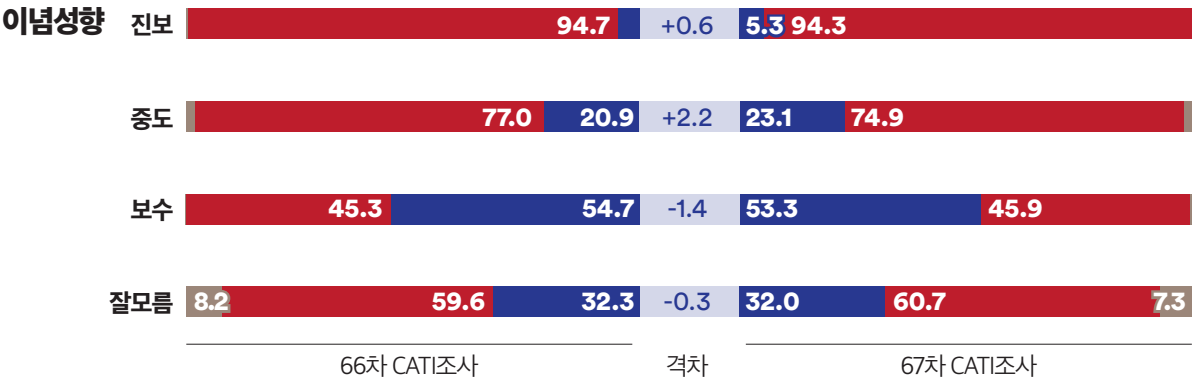
ARS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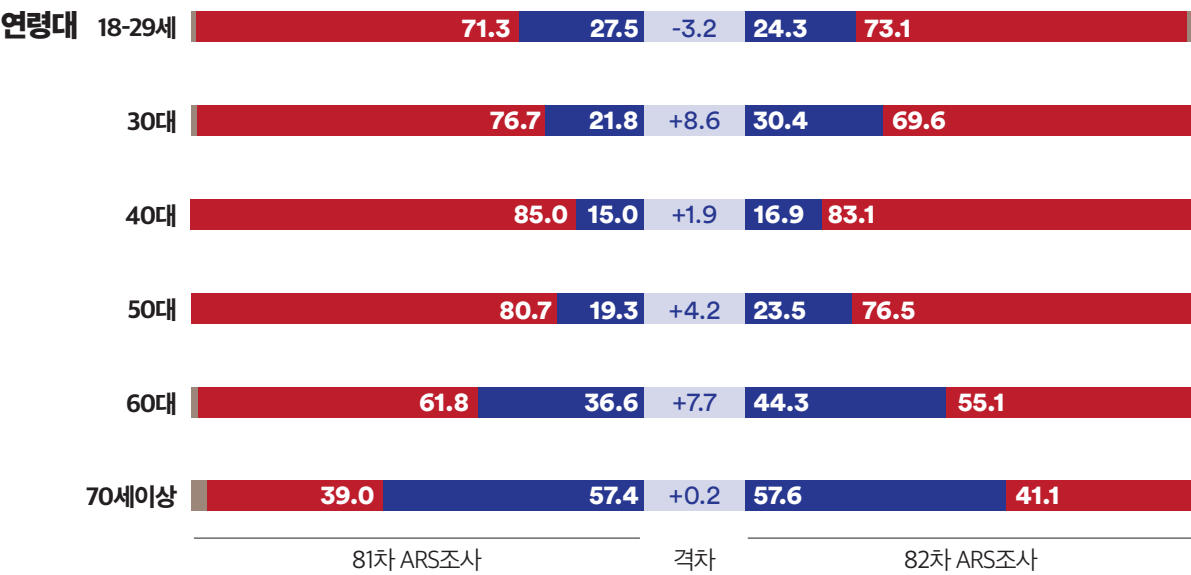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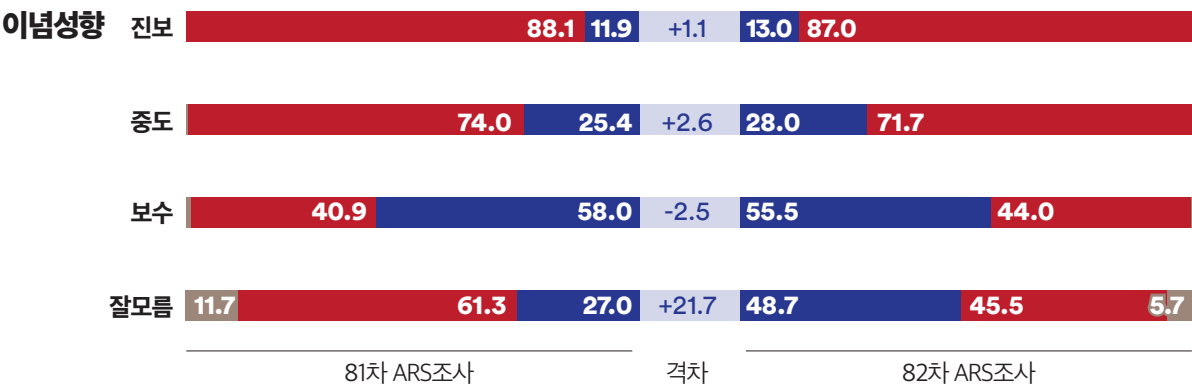
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

Q.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

CATI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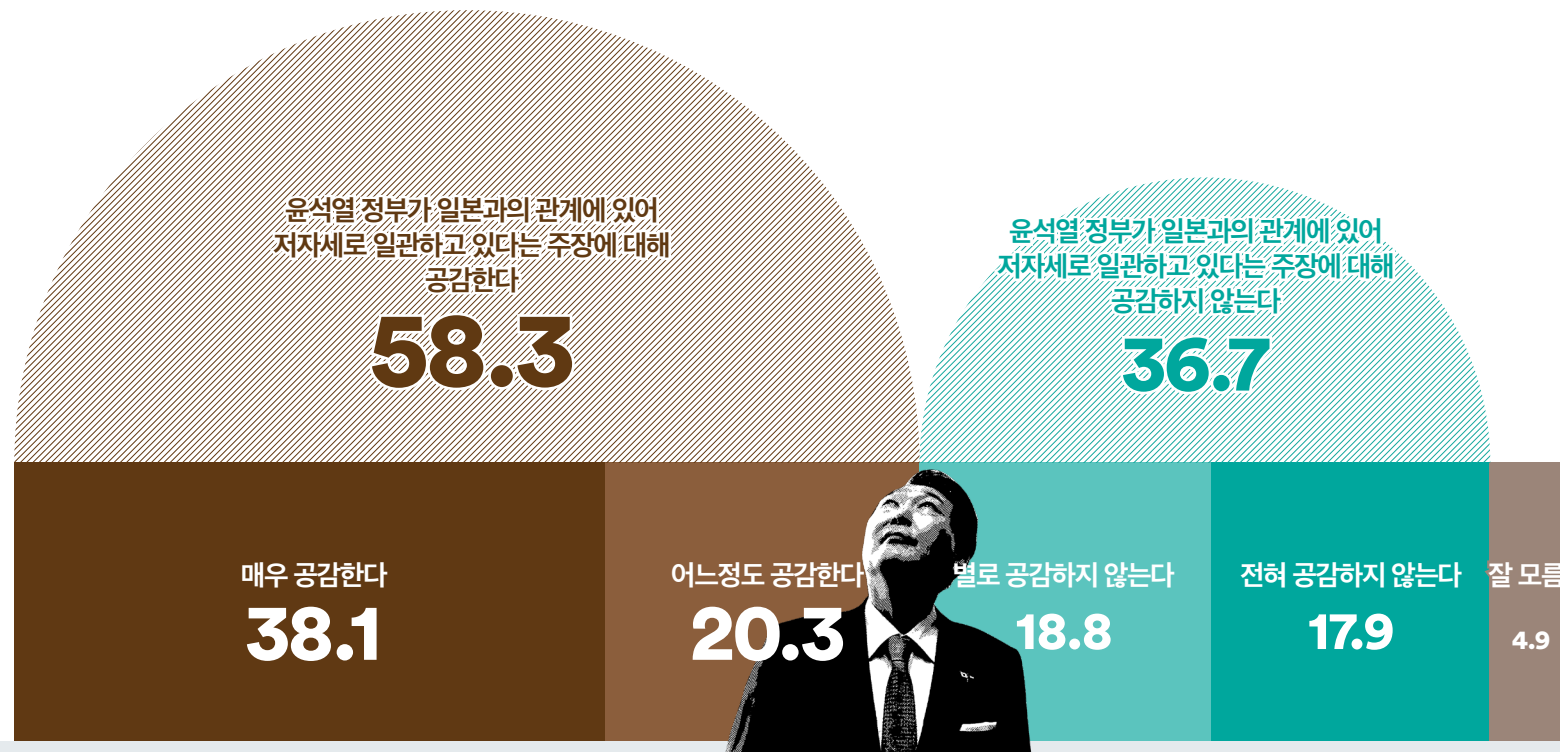
ARS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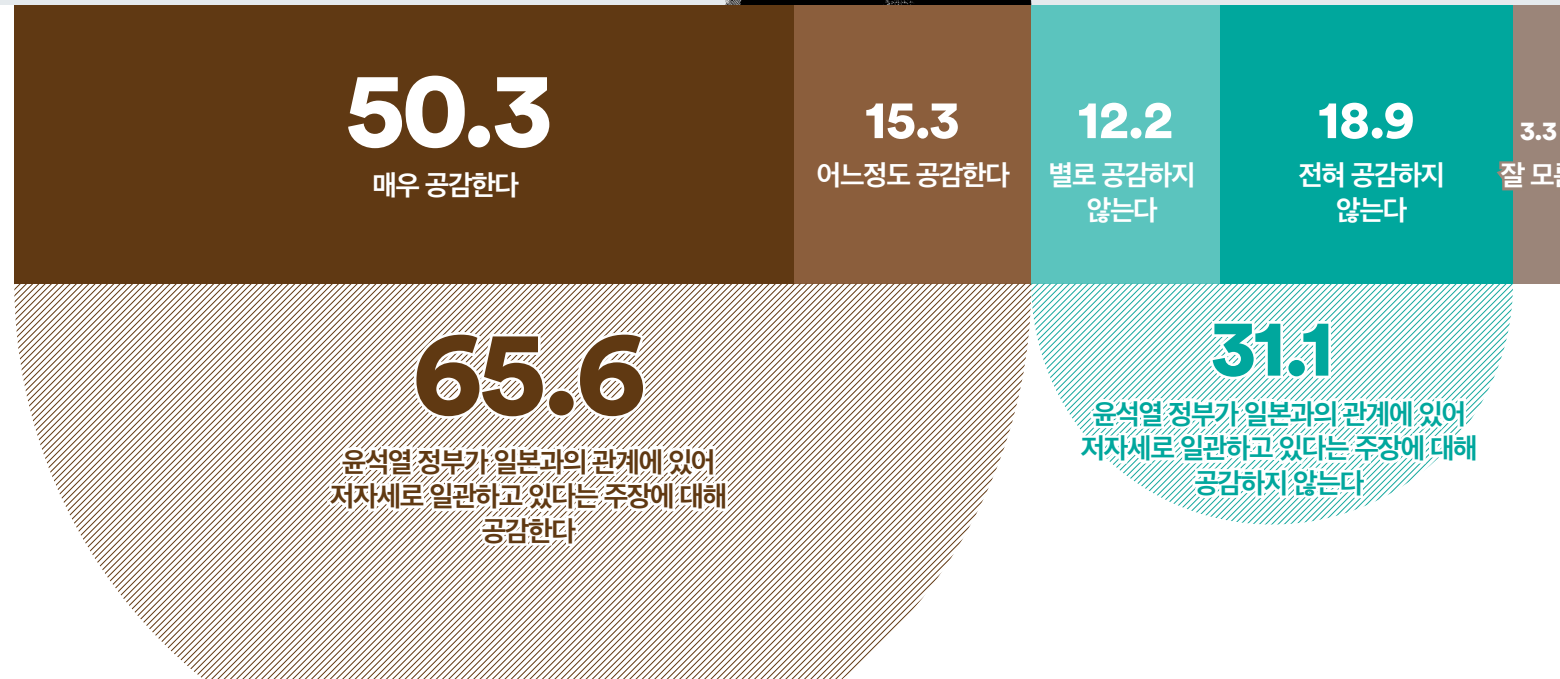
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

Q.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CAT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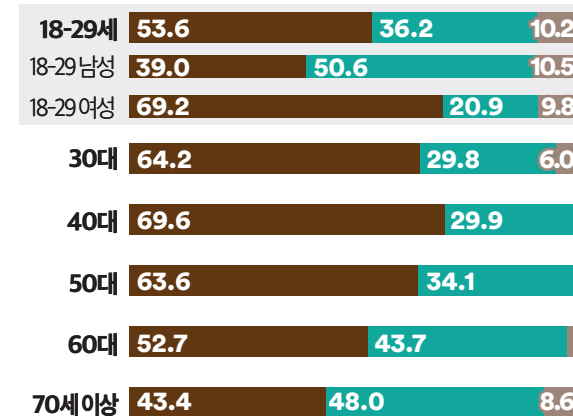


AR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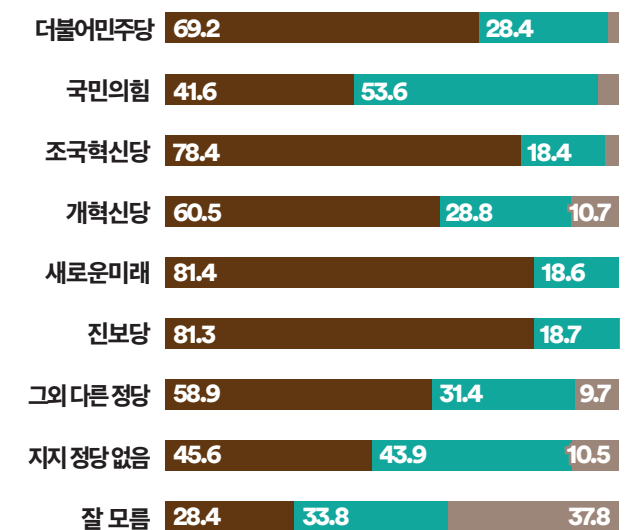


윤 정부가 대일외교에서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도를 묻은 결과, 두 조사의 응답자 절반 이상이 '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에 공감한다'고 응답(응답 간 격차: CATI 21.6%p, ARS 34.5%p)
CATI 조사의 TK권을 제외한 두 조사의 나머지 모든 권역, 50대이하 응답층에서는 '공감한다'란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
직업군 중 전체의 50%를 차지하는 화이트칼라·블루칼라 계층에서도 '공감한다'는 응답이 압도적 우위를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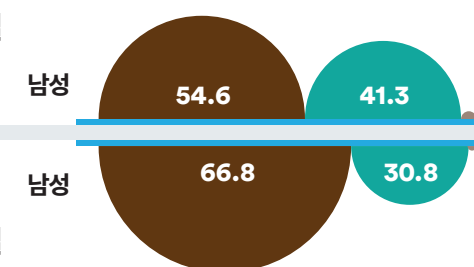
연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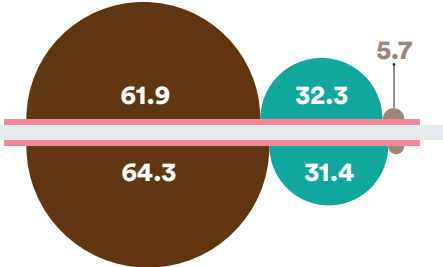
정당지지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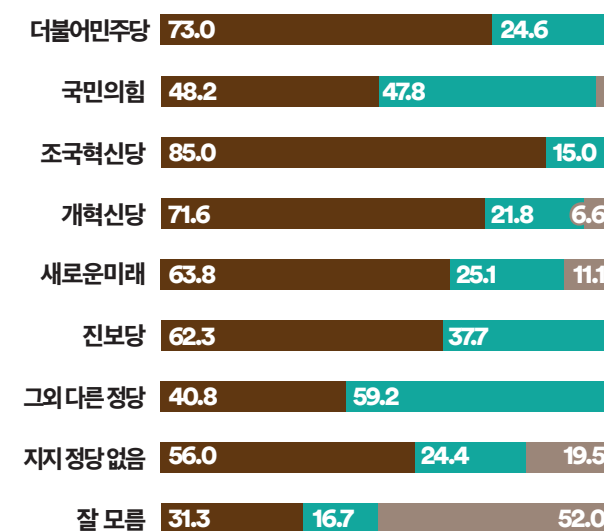
성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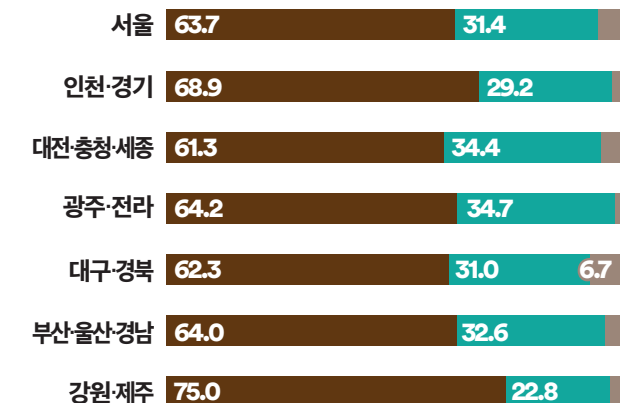
성별



정당지지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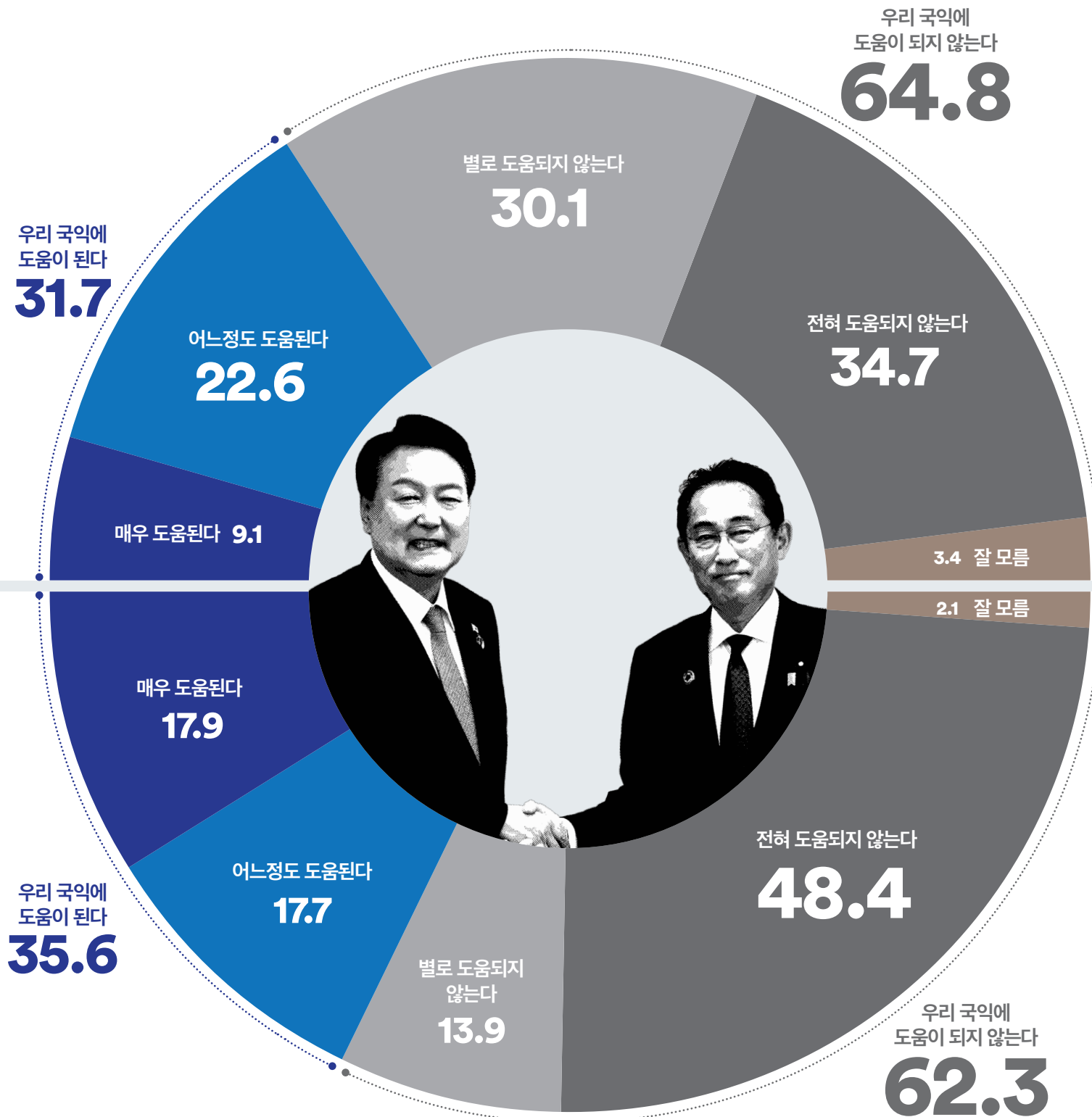
권역



공감한다, 공감하지 않는다, 잘 모름

Q. 윤석열 정부와 일본과의 관계가 우리 국익에 얼마나 도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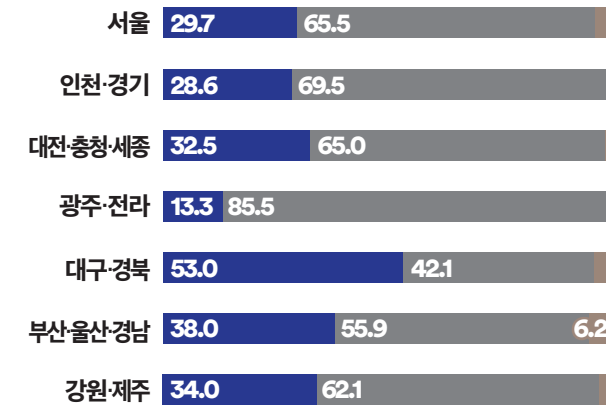
CATI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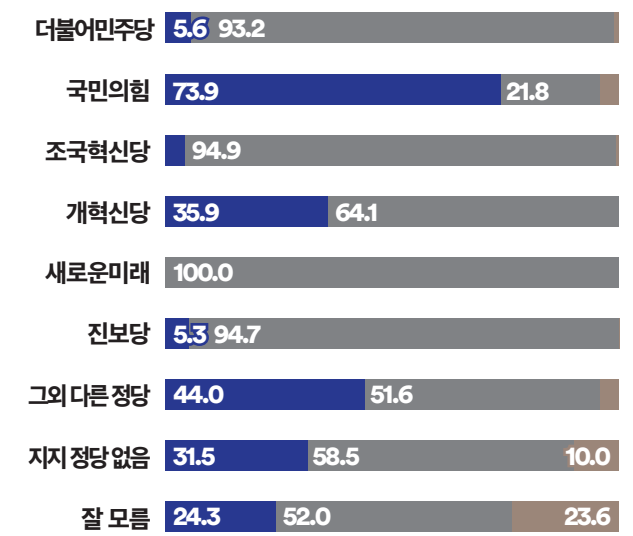
두 조사의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은 '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'고 응답(응답간 격차: CATI: 33.1%p, ARS: 26.7%p)

CATI 조사의 TK권을 제외한 두 조사의 나머지 모든 권역, 50대이하 응답층에서는 모두 ‘도움되지 않는다’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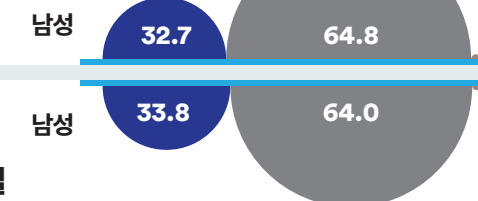
권역



정당지지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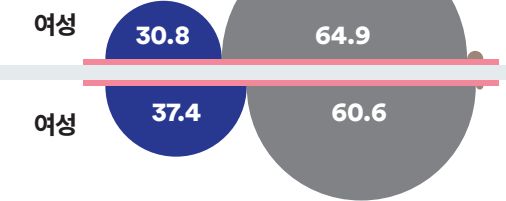


성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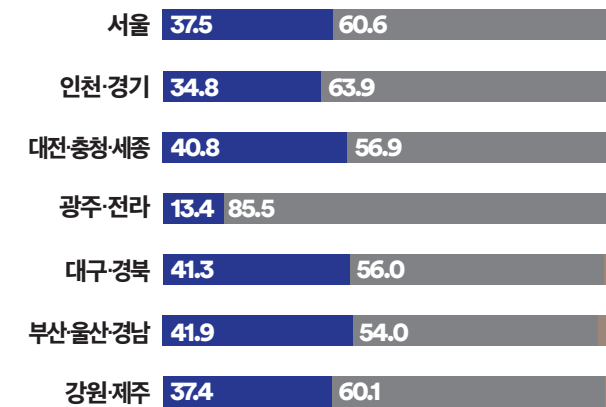
성별

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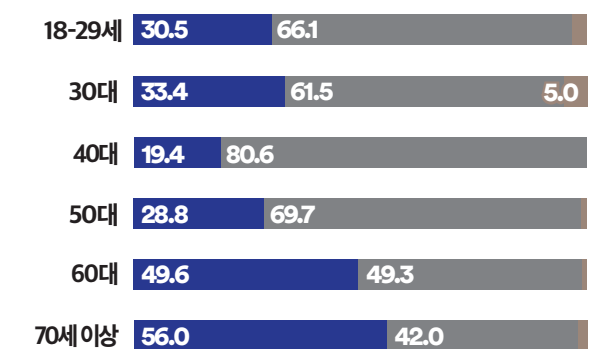


여성

권역



연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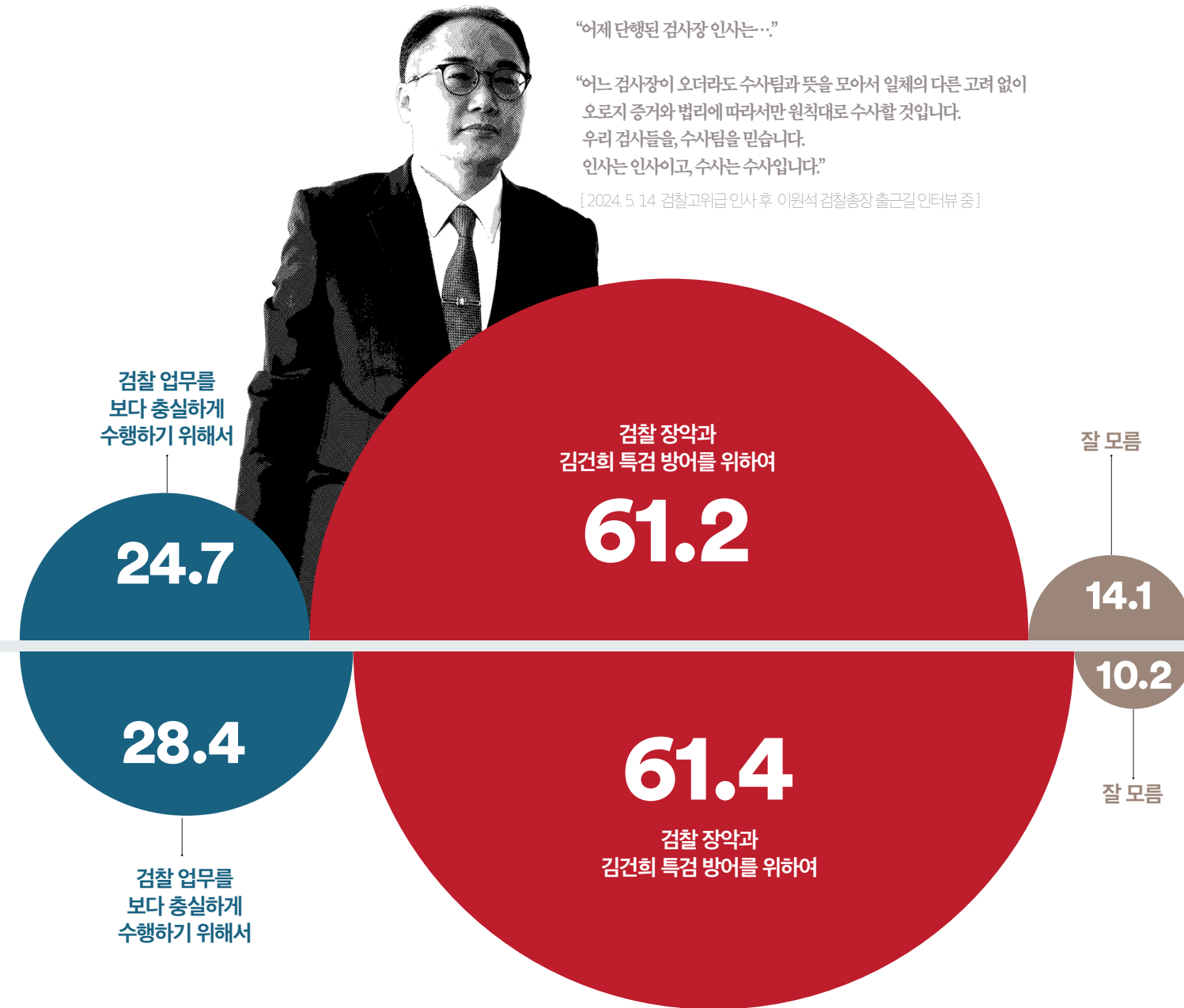


■ 도움된다 ■ 도움되지 않는다 ■ 잘 모름

Q. 최근 법무부는 서울지검장 등 대검 지휘부 6인을 교체했습니다.
이번 인사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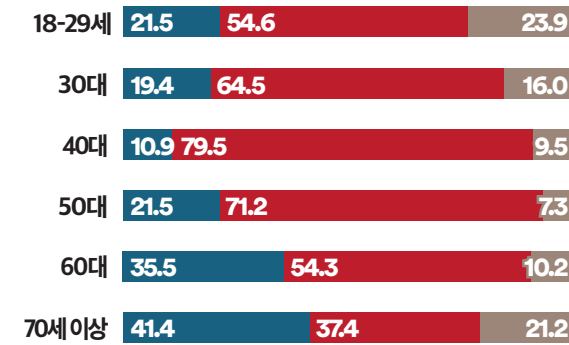
CATI

AR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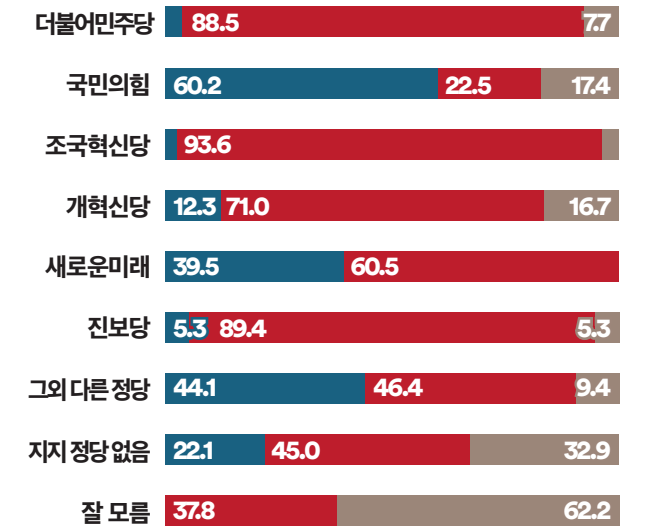


최근 법무부가 대검 지휘부 6인에 대한 교체를 단행한 것에 대해 물어본 결과,
응답자 10명 중 6명은 '검찰 장악과 김건희 특검 방어를 위해서'라 응답(응답간 격차: CATI 36.5%p, ARS 33.0%p)
60대 이하 연령층과 진보층·중도층에서 '검찰 장악과 김건희 특검 방어를 위해서'란 응답 우세
수도권, 충청, 호남, PK(ARS는 강원·제주 포함)에서는 '검찰 장악과 김건희 특검 방어를 위해서'란 응답이 우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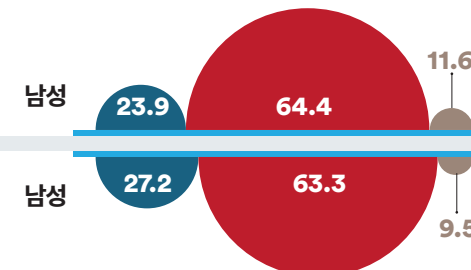
연령



정당지지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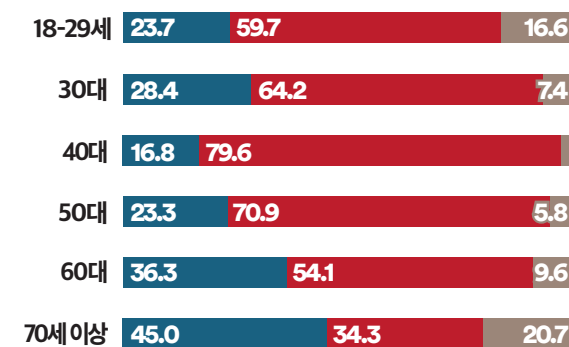
성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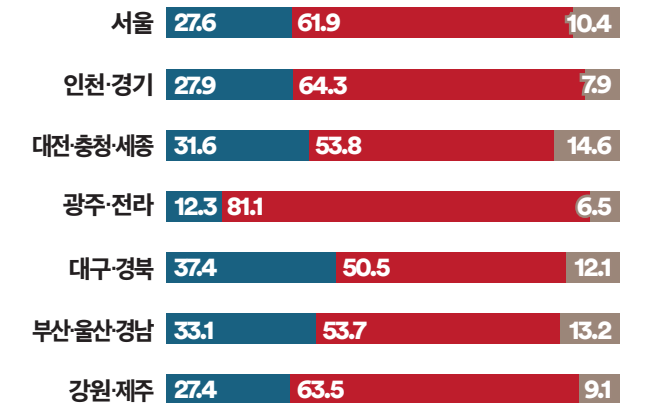
성별



연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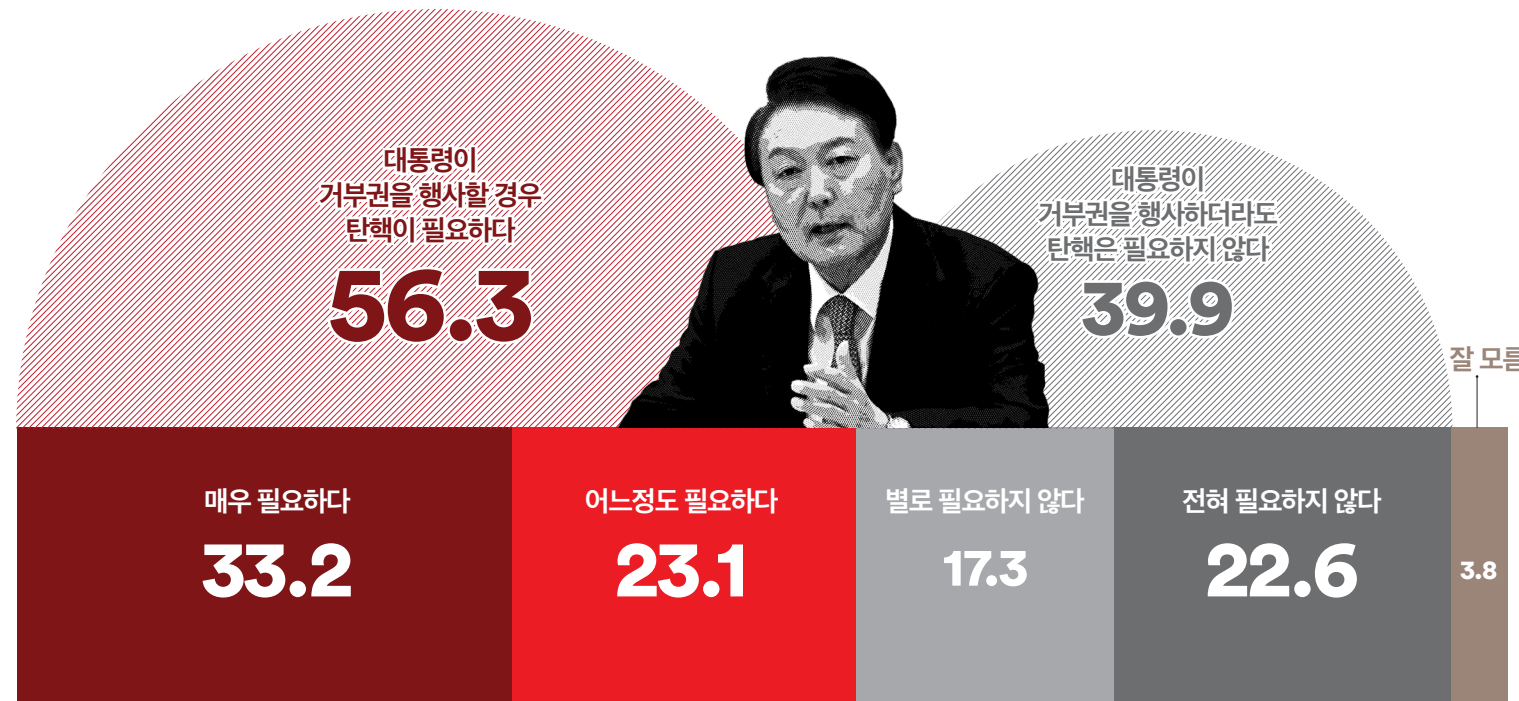
권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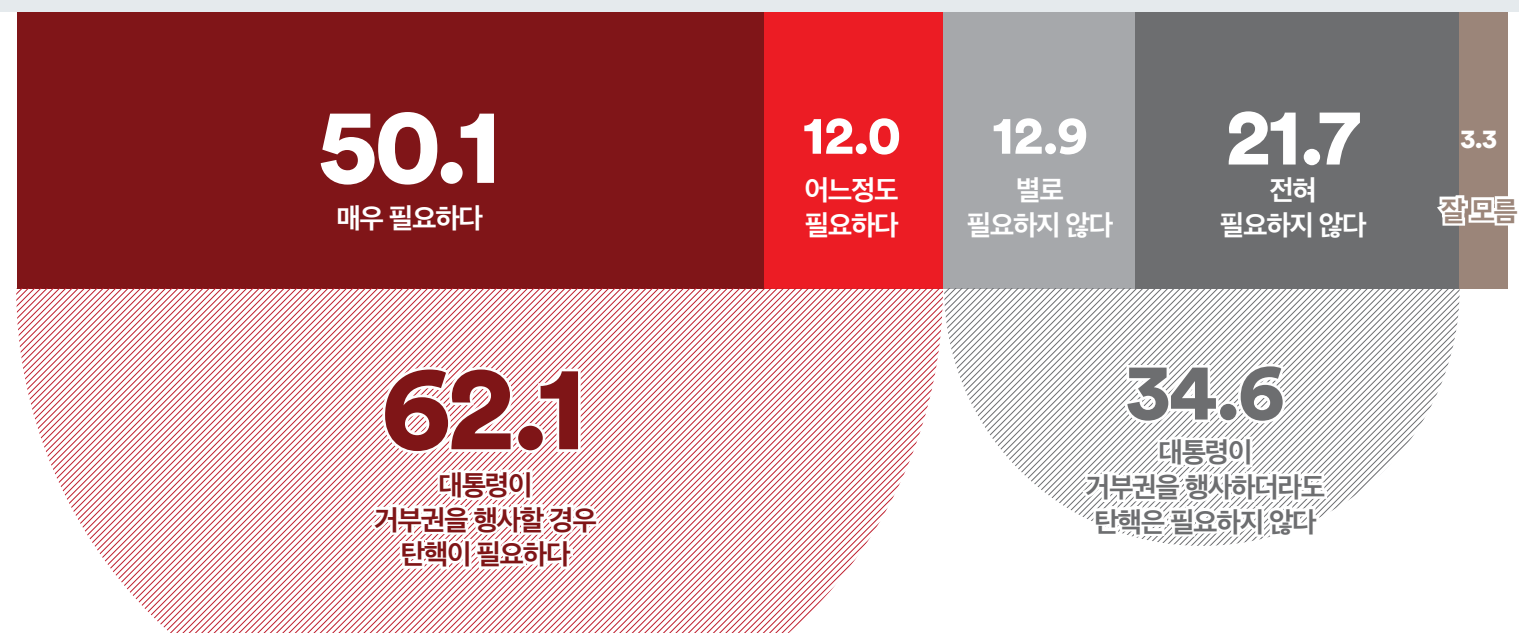
검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검찰 장악과 김건희 특검 방어를 위해 잘 모름

Q. 최근 야권에서는 “채상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 탄핵 요건이 된다”고 주장하는데요,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CAT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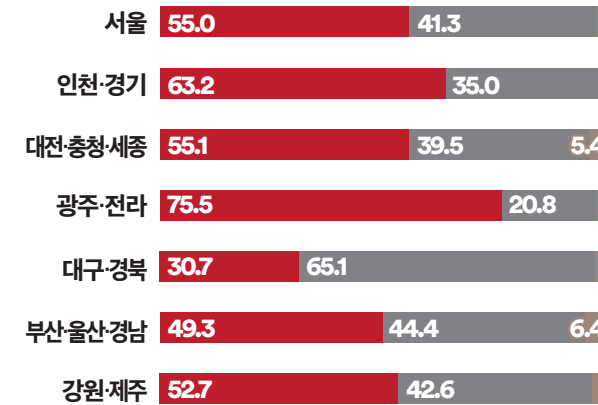


AR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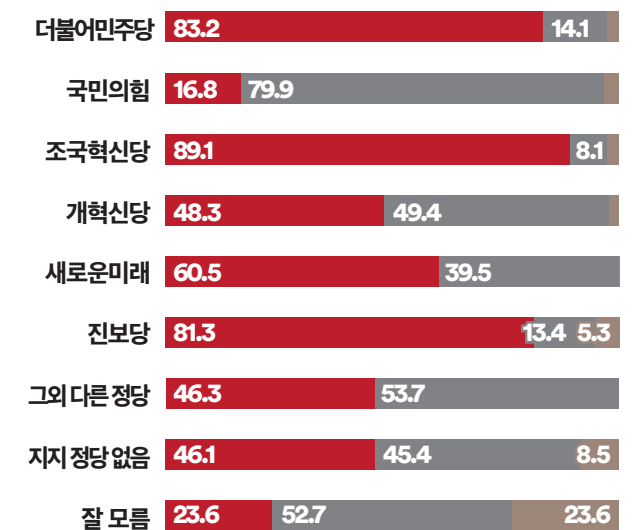


‘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 시, 대통령 탄핵 필요성’에 대해 물어본 결과,
두 조사의 응답자 10명 중 5~6명 이상은 ‘탄핵이 필요하다’라고 응답(응답간 격차: CATI 16.4%p, ARS 27.5%p)
CATI 조사의 TK권을 제외한 두 조사의 나머지 권역에서는 ‘탄핵이 필요하다’는 응답 앞섬
더불어민주당·조국혁신당, 진보층은 ‘탄핵이 필요하다’는 응답이 8~90%비율을 보임
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‘필요하지 않다’는 응답이 80% 정도로 나타남(보수층: CATI 63.8%, ARS 58.4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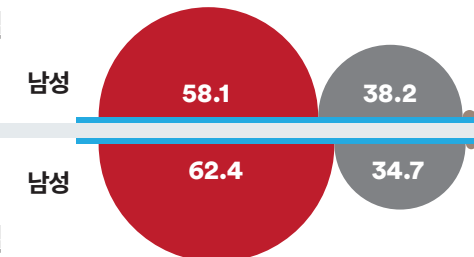
권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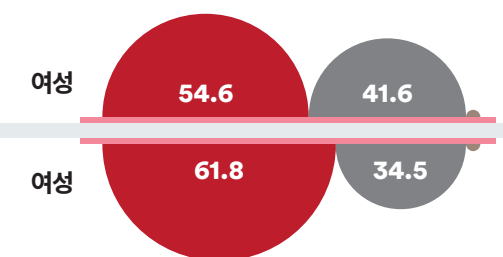
정당지지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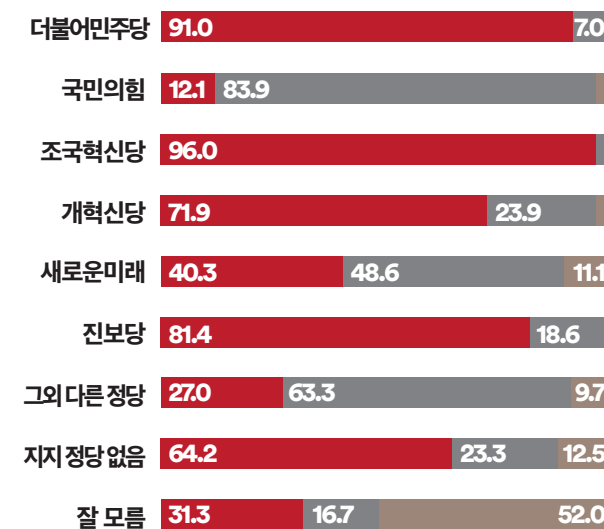
성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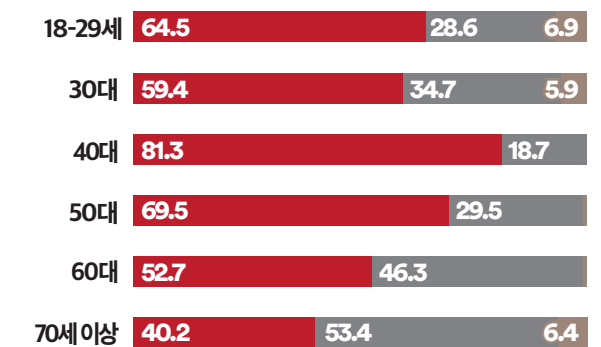
성별



정당지지도



연령



탄핵이 필요하다 탄핵은 필요없다 잘 모름

WWW.
FLOWERRESEARCH.
COM

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

WR_202405_04
